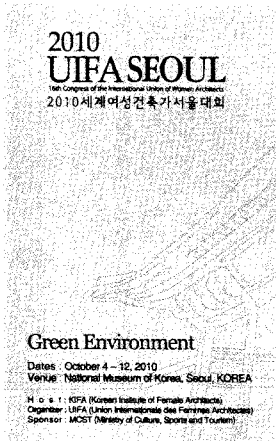


건축계소식

'2010 세계여성건축가대회' 서울에서 개최



'2010 세계여성건축가대회(2010 UIFA/Union Internationale des Femmes Architectes)'가 오는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건축가협회(회장 오경은)는 2008년에 부산의 아카시아대회에 이어 건축계에서는 국제대회가 두 번째, 세계대회는 첫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 행사가 여성건축인들만의 행사가 아닌, 건축인들의 축제로, 서울의 홍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건축계를 홍보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건축계의 후원을 기대했다. 이번에 개최되는 '2010 세계여성건축가대회'는 「Green Environment」라는 주제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건축가들의 역할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는 세계 여성건축가들의 단합과 네트워킹을 도모하고, 여성건축가의 역할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제도적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우수건축물 시찰의 체험적 교육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세계여성건축가대회는 1963년 프랑스 건축가인 Solange d'Herbes de la Tour에 의해 창립된 80여 개국의 여성건축가들의 연합이며, 오늘날 UIFA의 목표는 국가적 경계선을 넘어 건축, 도시계획, 환경디자인 그리고 관련된 분야의 여성들을 위한 포럼을 제공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건축, 도시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문가적 역량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세계

여성건축가대회는 1963년 Paris 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5차의 대회가 개최됐다.

'간향건축 저널리즘 워크숍' 제 1기 모집

간향미디어랩(대표 전진삼)은 '간향건축 저널리즘 워크숍'을 개설하여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졸업 전, 현장의 정보전달과 예비 저널리스트로서의 잠재적 능력을 스스로 확인,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간향건축 저널리즘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9개월, 총 15회 워크숍)이며, 모집인원은 10인 이내이다. 신청기간은 2월 22일(월)부터 3월 6일(토)까지이고, 합격자 발표는 3월 13일(네이버 카페_ 'AQKorea' 게시판 발표 및 개별 통지)이다.

• 워크숍 프로그램 개요

- 3월 27일: 1강_입교식 및 강의(저널리즘 세미나 1)
- 4월 24일: 1강_강의(인문교양 세미나)
- 5월 22일: 1강_강의(기초취재실습 1)
- 6월 26일: 1강_강의(기초취재실습 2)
- 7월 8일/ 15일/ 22일/ 29일: 4강_강의 및 실습(현대건축세미나 및 현장실습 1)
- 8월 5일/ 12일/ 19일/ 26일: 4강_강의 및 실습(현대건축세미나 및 현장실습 2)
- 9월 18일: 1강_강의(사회교양 세미나)
- 10월 16일: 1강_강의(저널리즘 세미나 2)
- 11월 20일: 1강_과정종합보고회 및 수료식

• 문의 : 간향미디어랩 02-2235-1960, widear@naver.com

제2회 심원건축학술상 제2차 추천작 발표

심원문화사업회(이사장 이태규)가 주최하는 제2회 심원건축학술상(2009~2010년도)의 제2차 추천작이 선정됐다.

추천작은 「탈식민주의 담론으로 본 해방 전후 한국건축가의 정체성, 김소연작」과 「The World after the Eden, 박성용작」, 「소통의 도시: 루이스 칸의 도시건축 1960-74, 서정일작」 등 총 3편이다. 운영위원회는 1, 2차 추천작을 중심으로 소정의 내부 심사절차를 통해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프로

그램을 지원하고, 그 가운데 매년 1편을 당선작으로 선정, 시상하게 된다. 당선작은 추후 5월 15일 격월간 건축리포트「와이드」誌 2010년 5~6월호 지면에 발표와 함께 개별통지되며, 당선작에 대해서는 상패 및 상금 500만원과 단행본 출간 및 인세가 지급된다.

'심원문화사업회(이하 사업회)'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한 건축가를 통하여 건축의 세계를 이해하고 애정을 갖게 된 기업가가 그와의 인연을 회억하며 건축의 인문적 토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만든 후원회로서 첫 번째 후원사업으로 건축 역사와 이론, 건축미학과 비평 분야의 미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신진학자 및 예비저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 문의 : 02-2235-1960

'공간' 전시회_장소의 기록, 기억의 재현



공간 500호를 기념해 공간이 2009년 한 해 동안 진행해온 '장소의 기록, 기억의 재현'을 한 자리에 모은 전시가 열린다.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는 1960~1980년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장소와 도시의 기억을 볼 수 있는 전시회이다. 전시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26일까지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설 연휴 휴무)까지이다. 공간사옥 소극장 '공간사랑'에서 전시되며, 참여 작가에는 강홍구, 김도균, 김용관, 박완순, 안성석, 이예린, 한성필 등이다.

• 문의 : 공간 02-3670-3639,

www.vmspace.com

제25회 건축사진아카데미

청암건축사진연구소(대표:임정의)에서 2010년 3월 24일부터 6월9일까지 12주간 건축사진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건축사진아카데미는 아나로그 방식의 촬영법과 디지

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방법 그리고 자신들의 건축작품을 표현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위주의 강의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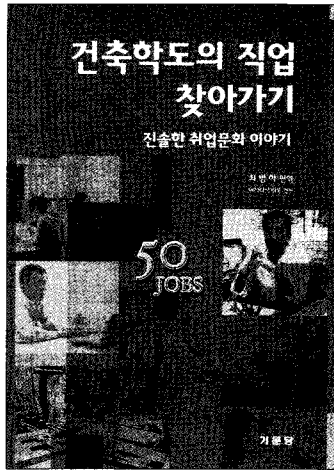
- 시간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0분간 이론강의/토요일은 과제 진행과 실습
- 장소 : 청암건축사진연구소(서울 광진구 구의동 206-2 청암빌딩 1층)
강남스튜디오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3-22(신희빌딩 B1)
- 일정
 - 1주차 : 오리엔테이션-건축을 보는 눈/건축사진의 기본적인 이해와 흐름
 - 2주차 : 카메라의 종류와 사용법/건축사진에서 필요한 카메라알기
 - 3주차 : Digital Camera의 기본적인 사용법/과제 : 각자 카메라로 표현하기(주제파악)
 - 4주차 : 과제에 대한 평가/디지털카메라 Raw파일 사용과 응용 프로세스
 - 5주차 : 건축모형에 대한 이해와 촬영방법/당일 모형 촬영/촬영 결과물 평가 및 보완/토요일 경기도 여주답사
 - 6주차 : 디지털 카메라를 위한 포토샵 활용 (Photoshop setting, Image adjustment)/토요일 출사/서울시내 현대건축
 - 7주차 : 3~6주차에 진행한 결과물에 대한 중간평과와 카메라사용에 대한 보충설명
 - 8주차 : 전통건축 or 현대건축 공간에 대한 이해/주말 출사 - 전통건축
 - 9주차 : 주말 출사 - 현대건축 실습촬영
 - 10주차 : 8~9주차에 대한 평가 및 포트폴리오 만들기
 - 11주차 : Portfolio만들기
 - 12주차 : Presentation과 총평
- 문의 : 02-444-7088

바로잡습니다

본지 12월 호의 25~31쪽에 된 회원작품의 「논현동 도요타 자동차자동차복합건물」의 설계자가 (주)민우 종합건축사사무' 로만 기재되었으나, 당 건축물은 컨셉단계에서 미국 LA의 'DRDS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주)민우 종합건축사사무'의 요청에 따라 설계사를 (주)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DRDS Architecture' 로 바로잡습니다.

신간안내

건축학도의 직업 찾아가기



이가라시 타로 저, 최병하 편역 | 256쪽 | 기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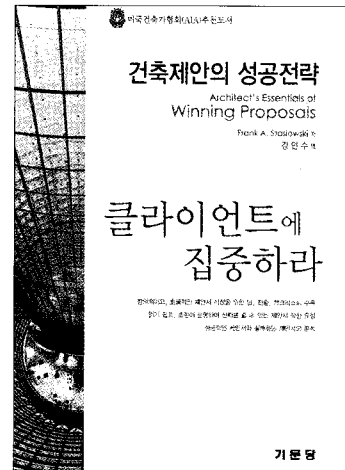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랫동안의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갈 때, 원하는 직업과 직장을 갖기를 바란다. 졸업생들에게 직업과 직장은 사회생활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이 책에서 저자 이가라시 교수가 언급하고 있는 건축관련 직종 중에 몇몇은 아직 우리나라에 정착되지 않는 부문도 있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직종과 자질은 자연스럽게 요구될 것으로 예측된다.

입학하는 건축학도들은 건축을 배움으로써 얼마만큼 다양한 업종이 기다리고 있는지, 건축이 얼마나 넓고 할 일도 많은지, 그리고 취업의 범위를 얼마만큼 다양하게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지를 이 책을 통해 알게 됨으로써 미리 취업준비의 길잡이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문의 : 02-2295-6171~5

건축제안의 성공전략 - 클라이언트에 집중하라



Frank A. Stasiowski 저, 강인수 역 | 254쪽 | 기문당

이 책은 기본적으로 용역제안서나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등 디자인이 수반되지 않는 '제안서' 작성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클라이언트에게 브리핑하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걸친 전 제안과정에서 건축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팁과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주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단순한 가격제안에서부터 현상설계, 턴키설계에 이르는 다양한 수주활동이 기본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부응하고 설득하는 '제안'의 일종이라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유익하다.

• 문의 : 02-2295-6171~5